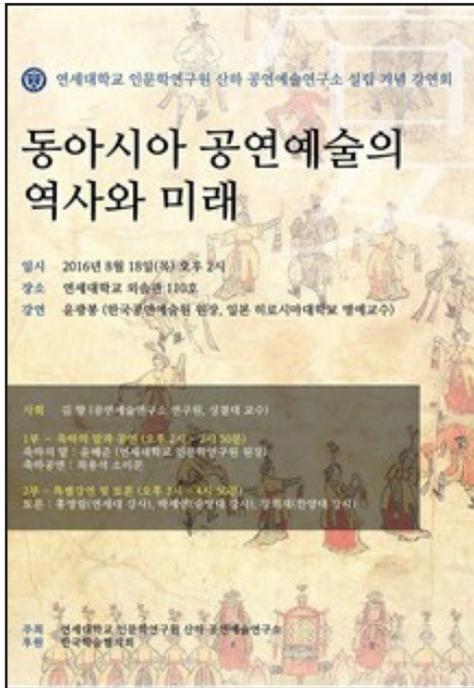


인문학연구원 소식

■ 산하연구소 설립 |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산하 공연예술연구소 설립



본 연구원 산하 공연예술연구소가 “‘지금-여기’무대의 감각, 사유 그리고 치유”를 모토로 설립되었다.

2016년 8월 18일(목)본교 외솔관 110호에서 설립을 기념하는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본 연구원 윤혜준 원장님의 축사와 최용석 소리꾼의 축하공연으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 히로시마대 명예교수이자 한국공연예술원 원장이신 윤광봉 선생님을 모시고 <동아시아 공연예술의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의 시간을 가졌다.

홍영림 연세대 강사와 박세연 중앙대 강사, 그리고 장희재 한양대 강사가 토론자로 나서 공연예술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공연예술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 - 축하의 말과 공연 | 사회 : 김향(공연예술연구소 연구원, 성결대 교수)

- 축하의 말 : 윤혜준(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원장)
- 축하공연 : 최용석 소리꾼

2부 : 특별강연 및 토론

- 윤광봉(한국공연예술원 원장, 일본 히로시마대학교 명예교수) : 동아시아 공연예술의 역사와 미래
- 토론 : 홍영림(연세대 강사), 박세연(중앙대 강사), 장희재(한양대 강사)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대회 | 연세대 인문학연구원·싱가포르 난양공대 공동세미나



2016년 4월 1일(금) 본 연구원은 싱가포르 난양공대 인문사회과학대(NTU-HSS)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The Affects of Border Crossing in Urban Asia(아시아 도시에서의 경계 넘기의 영향)>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문화, 언어적 차이가 만들어낸 경계의 문제와 역사적 맥락에서 경계 넘기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험되어 왔는지를 문학, 언어학, 영화학, 공연학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윤희준(연세대) : “An Invisible Hand,” Not Providence?
- The Famous Trope of The Wealth of Nations and the Eighteenth-Century Book History -
- 연구동(연세대) : The Hybrid of Writing Systems in Korea
- 이상준(싱가포르 난양공대) : Destination Hong Kong: The Geopolitics of South Korean Espionage Films in the 1960s
- 이현정(싱가포르 난양공대) : Lure of the national: Performing Korean Diaspora in Movement
Dang-Dang’s Fragmented Memories - An Eternal Parting -

■ 학술대회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정기학술대회 <유럽 문화에 나타난 ‘노인’토포스>



2016년 9월 3일(토) 본 연구원 산하 유럽사회문화연구소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유럽 문화에 나타난 ‘노인’토포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유럽의 문화 속에서 노년의 삶, 노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1부 사회: 곽민석(강원대)

- 최경은(연세대) : 성서에 나타난 노인 토포스
- 진인혜(목원대) : 플로베르와 노년
- 정인모(부산대) : 현대 독일 소설에 나타난 노년 - 모니카 마론의 경우
- 토론 : 한동구(평택대), 윤정임 (중앙대), 남덕현(연세대)

2부 사회: 김미성 (연세대)

- 이경희(선문대) :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노인
- 이경희(상명대) : 서양 철학에 나타난 노인
- 유봉근(순천향대) : 영화 <아모르>에 나타난 노인
- 토론: 엄순천 (동국대), 정대성(연세대), 이상면(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소식

■ 대중강좌 | 철학연구소, <서산철학강좌>



본 연구원 소속 철학연구소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서산철학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2016학년도 1학기에는 <철학의 고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 8시 30분까지 본교 외솔관 110호에서 총 4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128회 (5월 12일)

김재홍(전남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129회 (5월 19일)

진태원(고려대) 스피노자의 <에티카>

130회 (5월 26일)

서정혁(숙명여대) 칸트의 <실천이성비판>

131회 (6월 2일)

홍사현(연세대) 니체의 <도덕의 계보>

■ 학술지 |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인문과학』 제106집 간행

본 연구원은 2016년 4월 30일에 『인문과학』 제106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특집논문 6편과 일반논문 2편이 게재되었다.



문자특집논문: 동서양 문자의 사회문화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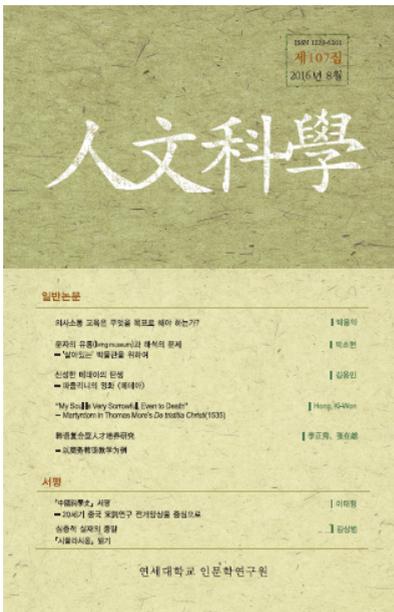
- 橋智(慶應義塾) : 古典籍の流通と 書文化
- Roger Chartier(Collège de France) : Qu'est-ce qu'un livre?
- Métaphores du passé, incertitudes du présent -
- 정승화(연세대) :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와 지식권력의 재구성
- 김미성(연세대) : 문자를 통한 민중문화 비판 - 백과사전Encyclopédie of 『광인들의 축제』 항목을 중심으로-
- 최경은(연세대) : 문자의 유통
- 18, 19세기 독일의 대여도서관 제도를 중심으로-
- 조대호(연세대) : 글, 말, 기억- 플라톤의 문자비판에 대한 또 하나의 해석 -

일반논문

- 장병진(연세대) : 고구려 출자 의식의 변화와 集安高句麗碑 의 건국설화
- 임재호(연세대) : 언어학의 시학을 위한 구조주의 고찰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지 | 인문학연구원 학술지 『인문과학』 제107집 간행



본 연구원은 2016년 8월 30일에 『인문과학』 제107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일반논문 6편과 서평 2편이 게재되었다.

일반논문

- 박용익(고려대) : 의사소통 교육은 무엇을 목표로 해야 하는가?
- 박소현(서울과기대) : 리빙 뮤지엄(living museum)과 해석의 문제 - '살아있는' 박물관을 위하여 -
- 김용민(연세대) : 신성한 메데아의 탄생 - 파졸리니의 영화 『메데아』 -
- 홍기원(서울대) : "My Soul Is Very Sorrowful, Even to Death" - Martyrdom in Thomas More's De tristitia Christi(1535)
- 李正秀(对外经济贸易大学), 张在雄(对外经济贸易大学) : 韩语复合型人才培养研究 - 以商务韩语教学为例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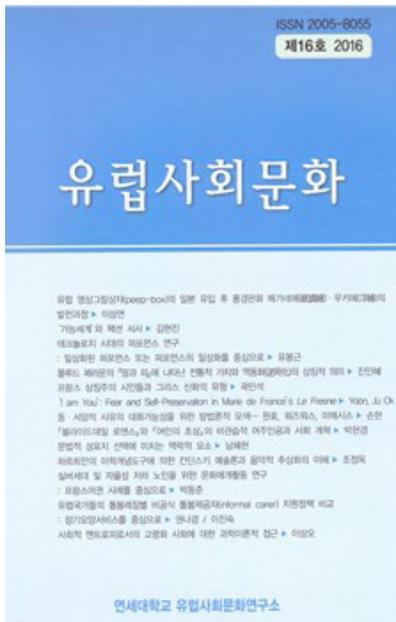
서평

- 이태형(중앙대) : 『中國詞學史』 서평 - 20세기 중국 宋詞연구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 김상범(포항공대) : 심층적 실재의 종말 - 『시물라시옹』 읽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인문과학』은 매년 4월, 8월, 12월에 간행되며, 4월에는 문자문화 전반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는 '문자특집호'로 발행하고 있다. 『인문과학』에 게재된 논문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홈페이지(<http://inmun.yonsei.ac.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인문학연구원 소식

■ 학술지 |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학술지 『유럽사회문화』 제16호 간행



본 연구원 소속 유럽사회문화연구소는 2016년 6월 30일 『유럽사회문화』 제16호를 발간하였다. 이번 호에는 총 13편의 학술논문이 게재되었다. 수록 논문은 다음과 같다.

- 이상면(연세대) : 유럽 영상그림상자(peep-box)의 일본 유입 후 풍경판화 메가네에 (眼鏡繪) 우키에(浮繪)의 발전과정
- 김현진(홍익대) : '가능세계'와 픽션 서사
- 유봉근(순천향대) : 테크놀로지 시대의 퍼포먼스 연구: 일상화된 퍼포먼스 또는 퍼포먼스의 일상화를 중심으로
- 진인혜(목원대) : 물루드 페라운의 『땅과 피』에 나타난 전통적 가치와 역동화(逆同化)의 상징적 의미
- 광민석(연세대) :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과 그리스 신화의 유형
- 윤주옥(연세대) : 'I am You': Fear and Self-Preservation in Marie de France's Le Fresne
- 손현(성결대) : 동·서양적 사유의 대화가능성을 위한 방법론적 모색 - 원호, 워즈워스, 미메시스
- 박현경(남서울대) :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와 『여인의 초상』의 비관습적 여주인공과 사회 개혁
- 남혜현(연세대) : 문법적 성표지 선택에 미치는 맥락적 요소
- 조정옥(성균관대) : 하르트만의 미학개념도구에 의한 칸딘스키 예술론과 음악적 추상화의 이해
- 박동준(연세대) : 실버세대 및 자율성 저하 노인을 위한 문화매개활동 연구: 프랑스어권 사례를 중심으로
- 권나경(대구대), 이진숙(대구대) : 유럽국가들의 돌봄레짐별 비공식 돌봄제공자 (informal carer) 지원정책 비교: 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 이상오(연세대) : 사회적 엔트로피로서의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과학이론적 접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KCI)인 『유럽사회문화』에 게재된 각 논문은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유럽사회문화연구소 홈페이지(<http://web.yonsei.ac.kr/ieurope>)에서 열람할 수 있다.

■ 학술대회 | 연세대 인문학연구원·북단대 출토문헌과 고문자연구소 공동세미나



본 연구원은 2016년 3월 25일(금) 본교 종합관 301호에서 <문자와 일상> 이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문자생활을 중심으로 하여, 일상에서 어떠한 문자생활이 영위되고 있는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문자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하였다. 특히, 중국에서 새롭게 발굴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옛 사람들의 의약(醫藥)과 질병, 『상서(尙書)』의 해석과 관련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일본에서 만든 한자를 중국어로는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울러, 문자가 갖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졌다. 이번 공동 세미나를 통해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연구동향과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다. 발표자와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 : 사회 - 이규갑(연세대)

- 류자오(북단대): 첸쉐이진관에서 출토된 한간에 보이는 의약 관련 내용에 대한 고찰
- 우커징(북단대): 《尹至》의 “惟 虐德暴亡典” 문구에 대한 해석

2부 : 사회 - 이규갑(연세대)

- 마쓰오카 에지(동경학예대): “𠄎”자 재고-일본이 만든 한자의 중국어 독음 문제를 아울러 논하다
- 이전경(연세대): 그림이 되고픈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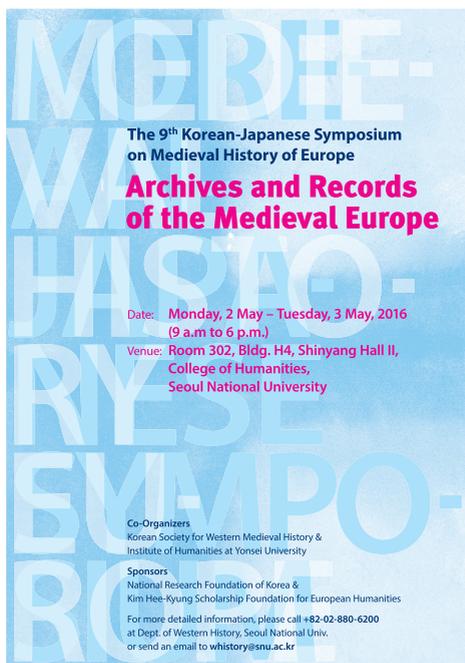
■ 학술대회 | <Quotidian Cultures of Writing and Reading(쓰기와 읽기의 일상 문화)>



본 연구원은 2016년 4월 22일(금) 문과대학 100주년 기념홀(위당관 6층)에서 <쓰기와 읽기의 일상 문화>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해외협정기관과의 학술교류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근현대의 일상생활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쓰기와 읽기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 니콜라스 브라운리스(피렌체대) : “Judicious and Favourable Reader”
- The Dynamick of Writing and Reading News in Early Modern England
- 게이코 가와치(게이오대) : History and Creation - Pat Barker and the First World War
- 정승화(연세대) : The Pen Pal Boom in the 1960s and 1970s in South Korea and the Emotional Education of Citizenship

■ 학술대회 | 한일중세사 심포지엄



본 사업단은 한국서양중세사학회와 공동으로 한일중세사 심포지엄 “중세 유럽의 문헌과 기록(Archives and Records of Medieval Europe)”을 개최하였다.

2016년 5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 서울대학교에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본 사업단의 HK교수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중세사학자 13명이 중세 프랑스, 이탈리아, 비잔티움 제국, 잉글랜드의 문자 문화와 기록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발표하였다.

■ 학술대회 | <유토피아> 출간 500주년 기념 세미나



본 사업단은 2016년 5월 27일(금) 연희관 106호에서 국가관리연구원(원장 이종수)과 공동으로 <유토피아> 출간 5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라틴어 초판본의 출간 500주년을 맞아 “낙원에 대한 기억, 혹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를 희망할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의 비전을 되짚어보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위기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을 반성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1부 : 사회: 윤혜준(연세대, 인문학연구원장)

- 이종수(연세대) : 유토피아 속에 나타난 공동체
- 홍기원(서울대) : 모어가 제시했던 최선의 정부형태론
- 이상현(건국대) : 건축에 나타난 유토피아 사상
- 토론 : 박명림(연세대, 정치학)

2부

- 김태원(서강대) : 모어와 16c 영국문학
- 이규성 신부(서강대) : 토마스 모어는 왜 성인인가?
- 서신혜(한양대) : 조선인의 유토피아
- 토론 : 최주리(이화여대, 영문학)

■ **해외학자 초청강연 | [제25차] 세키네 겐 : <경계를 넘는 문학 : 번역의 의의와 과제>**



2016년 5월 20일 본 사업단은 일본 게이오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세키네 겐(關根 謙) 선생님을 초창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세키네 겐 교수는 1930년대 이후의 중국 문학, 특히 전쟁 시기 도시 문학과 미디어의 관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의 정치와 문학, 해외 화교 문학 등을 연구해왔으며, 문학 작품의 번역에도 관심을 갖고 발표해 왔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경계를 넘는 문학 : 번역의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으로 문학 작품 번역의 의의와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언어를 초월하는 문학 작품의 힘, 원작과 번역 작품의 관련성 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 **문자세미나 | [제29차] <동서양의 서간문화>**



2016년 3월 7일(금) 외솔관 526호에서 제29차 문자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본 사업단 소속 교수들의 연구발표회로 구성하였다. <동서양의 서간 문화>라는 주제 아래 일상생활 속 쓰기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서간’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서간 작성법과 관련된 동서양의 서간 문화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다. 발표자와 세부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이진경(연세대) : ‘연간독’을 중심으로 한 한글 편지 작성법
- 윤주옥(연세대) : 중세 서간 작성법 아르스 디크타미니스(ars dictaminis)
- 이해민(연세대) : 근대 초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신
- 정승화(연세대) : 1970년대 한국의 편팔 교본

■ 문자세미나 | [제30차] 연구보조원 발표회



2016년 6월 10일(금) 외솔관 526호에서 열린 제30차 문자세미나는 학문후속세대양성의 일환으로 본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박사과정 연구보조원의 발표회로 진행되었다. 발표자와 발표주제는 다음과 같다.

- 장병진(본교 박사과정) : 고구려 유민 ‘泉(淵)男産’墓誌에 대한 고찰
- 이유진(본교 박사과정) : 노르웨이어와 덴마크어의 차이 연구 -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 김홍매(본교 박사과정) : 현대중국어 ‘能VP’류 구조에 관한 고찰
- 김수정(본교 박사과정) : “好好的”의 의미연구

■ 대중강좌 | 서울남부교도소 수형자 집중인성교육 인문학 강좌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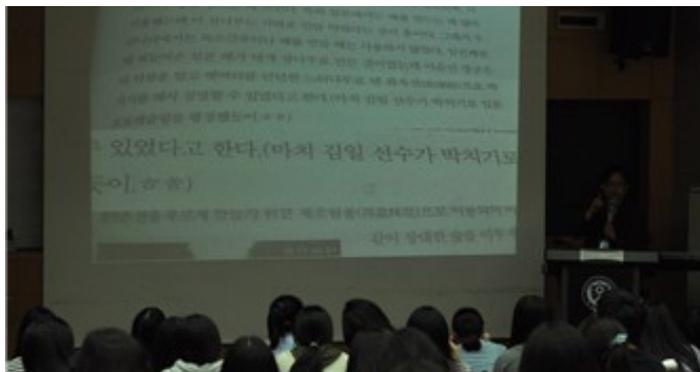


본 연구원은 인문한국(HK)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연구 성과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 수형자 집중인성교육을 위한 인문학 강좌를 지원하고자 지난 2014년 12월 5일 서울남부교도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5년 3월 25일부터 5기수에 걸쳐 총 20회의 강연을 진행하였고, 올해에는 “삶의 안내자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수형자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2016년 2월 24일부터 3기수에 총 9회의 강연이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9월 7일부터 총 10회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 강좌는 다양한 인문학 주제 및 고전 강의를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고급의 인문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수형자들이 인문학의 관점에서 자신과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문학자들의 실질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기회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9월 7일(수), 최경은(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성서의 문화사
- 10월 18일(화), 박진영(인문학연구원 HK교수) : 교과서에서 배운 가짜 번역 이야기
- 10월 26일(수), 장영태(홍익대 전 총장) : 미술과 문학
- 11월 2일(수), 이재원(연세대 사학과 교수) : 제국주의의 문화사
- 11월 9일(수), 이전경(인문학연구원 연구원) : 말과 삶(비폭력 화법)
- 11월 23일(수), 고인덕(연세대 중문과 강사) : 한시의 멋과 맛
- 11월 29일(화), 연구동(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세계의 문자 이야기
- 12월 6일(화), 곽민석(인문학연구원 연구원) : 생활 속의 그리스 신화
- 12월 14일(수), 박동준(인문학연구원 연구원) : 교육기부문화
- 12월 21일(수), 윤혜준(연세대 영문과 교수) : 찰스 디킨스와 크리스마스 캐럴

■ **대중강좌** | 청소년 인문학 강좌 <문자의 미래> 개최



본 연구원은 2016년 5월 7일(토)과 5월 21일(토) 두 차례에 걸쳐 2016년 봄 학기 청소년 인문학강좌 <문자의 미래>를 개최하였다. 매년 봄과 가을, 문자와 인문학 전반에 관련된 주제의 강좌를 통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청소년들이 인문학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강좌에서도 총 150명의 서울지역 고등학생들이 참여한 이번 강좌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이 가져온 우리 삶의 변화, 특히 문자 생활과 문자 자체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아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문자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

5월 7일(토)

- 연구동(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읽는 문자, 보는 문자
- 김양은(건국대 연구교수): 디지털로 보는 세상, 디지털로 만드는 세상

5월 21일(토)

- 정승화(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위키피디아와 집단지성
- 유현주(연세대 독문과 교수): 디지털 코드와 문자

■ **작은 전시회** | 인문학연구원 소장 서양 고서 기증 기념 전시회 <호모 리테라투스(Homo Literatus)의 서재>



본 사업단은 그동안 수집, 연구해 온 16종 77권의 희귀 도서를 본교 학술정보원에 기증하였다. 2016년 4월 11일 기증을 기념하여 기증식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여 17~18세기 유럽에서 출판된 인문서와 작품집 초판본을 공개하였다. 4월 22일까지 연세·삼성 학술정보원 조용선 전시실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의 학문과 문예를 대변하는 철학, 수사학, 사전, 여행기, 문자학, 문학서, 예술사 서적을 통해 지금 우리 시대가 문자로 물려받은 정신적·문화적 자산의 본체와 만나는 귀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1, 『세계의 언어사전』



본 사업단에서는 『세계의 언어사전』 (한국문화사)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21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제목과 같이 ‘언어사전’, 그 중에서도 표제어와 뜻풀이가 같은 언어로 된 단일어 사전에 초점을 맞추었다.

단일어 사전 가운데서도 외국인 학습자가 아니라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삼는 언어사전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언어사전들을 다루는 네 편의 글로 구성된 1부와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서부 유럽 4개국의 대표적인 언어사전들을 살펴보는 다섯 개의 글로 구성된 2부로 나뉘어 있다. 동서양의 여러 사전들 가운데 현재 널리 사용되는 사전이거나 사전학의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사전을 선정하였고, 세계 주요 7개 언어권의 대표적 국어사전에 대한 고찰을 한 곳에 모았다는 점에서 각 언어권의 언어적 특징 외에 각 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2, 『세계의 백과사전』



본 사업단에서는 『세계의 백과사전』 (한국문화사)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22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백과사전의 출간 및 내용과 의의에 대한 역사적, 서지학적, 문화사회학적 탐구를 모은 것이다. 백과사전에 대한 연구는 문자 위에 세워놓은 인간 문명의 고리를 밝히는 매우 요긴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백과사전은 각 시대의 지식의 총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백과사전의 출간은 개인의 역량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식이 누적되고 축약된 결과물이다. 또한 술한 문자와 도표, 삽화 등이 등장하는 육중한 백과사전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각 시대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경제적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3,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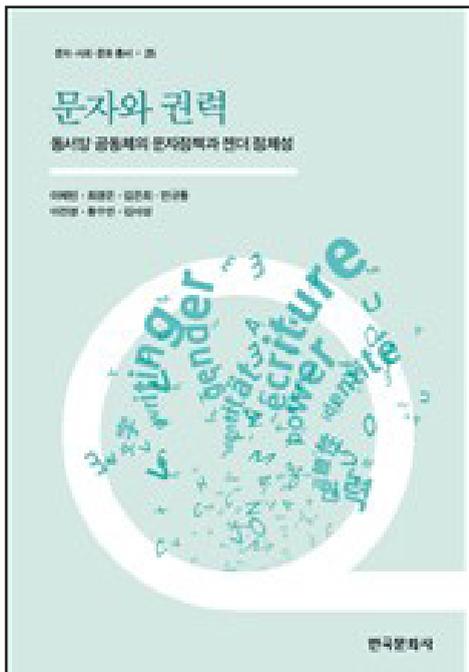
본 사업단에서는 『세계인이 바라보는 한글』 (한국문화사)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23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해외에서 이루어진 여러 논저에서 훈민정음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서 세계 문자사에서 한글의 문자적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한 시도이다. 10여 년 전에 이미 비슷한 주제의 저작이 있었지만, 이 책은 그 후의 변화상까지 반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연구 상황을 추가하였다. 가능한 2000년대 이후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한글 연구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진전된 인식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외국인의 시각을 통하여 문자로서의 ‘한글’의 위상을 살핌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4, 『각필의 문화사』



본 사업단에서는 『각필의 문화사』 (한국문화사)를 <문자·사회·문화> 총서 24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각필과 일본 국어사 연구의 대가인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최근의 저서를 번역 출간한 것으로서 저자가 일본, 중국, 한국의 자료들을 찾아 탐색하며 그 의미를 찾아낸 역작이다. 저자는 한국에서 2000년 초조대장경에 찍힌 점토구결을 발견하였고 이것을 일본의 오코토텐 및 가나와 연결시킴으로써 한국의 구결이 일본 문자의 원류라는 것을 밝혔다. 2000년 이후 한국에서 많은 각필자료들이 발견된 이후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고, 다수의 해독서가 나왔으나 ‘각필’자료 전반을 아우르며 그 문화적 의미까지 다룬 저서는 그동안 없었다는 점에서 이 번역서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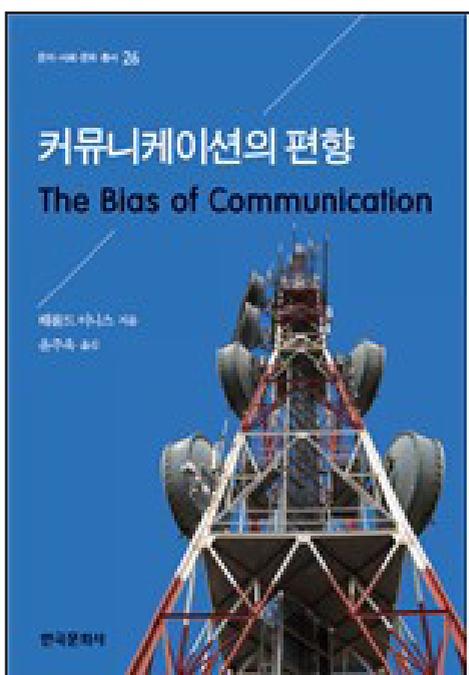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5, 『문자와 권력』



본 사업단에서는 『문자와 권력 - 동서양 공동체의 문자정책과 젠더 정체성-』 (한국문화사)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25로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는 문자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인 권력관계가 어떻게 드러나고 작동하는지, 미시적, 일상적 차원에서의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용했는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역사학, 문화학, 언어학, 문자학, 고전문학, 현대문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포괄적은 아니더라도 구체적, 실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문자와 권력>이라는 화두와 관련하여 ‘문자와 공동체’ 및 ‘문자와 정체성’이라는 두 가지 중심적인 세부연구주제에 대해 수행한 연구 성과를 모은 논문집이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6, 『커뮤니케이션의 편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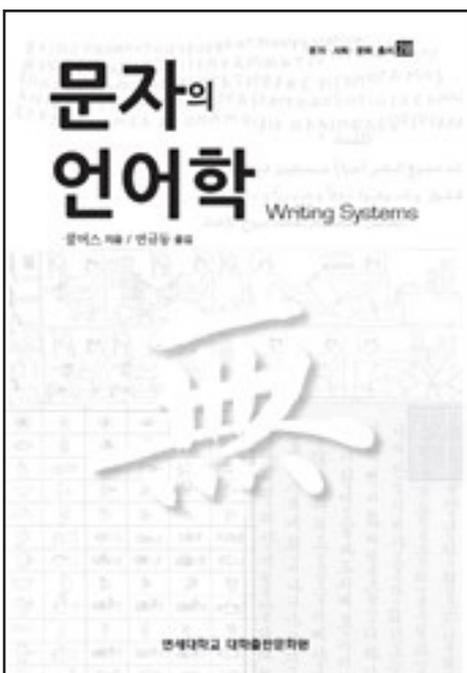
본 사업단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편향』 (한국문화사)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26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해럴드 이니스가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강연한 연설문을 단행본으로 엮은 책이다. 책에 수록된 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뉘는데, 하나는 역사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 접근법을 확립하는 글이고, 다른 하나는 좀 더 근래의 문화와 기술이 갖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글이다. 이 책은 『제국과 커뮤니케이션』, 『변화하는 시간 개념』 과 함께 말년의 이니스가 이룩한 정전의 하나로 이니스의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읽어야 할 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7, 『서지학에의 권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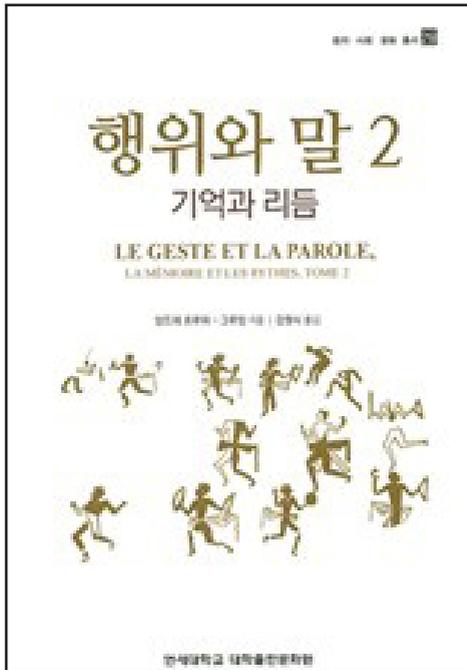
본 사업단에서는 『서지학에의 권유』(한국문화사)를 <문자·사회·문화> 총서 27로 출간하였다. 대학원 시절부터 서고 안에서 책들과 씨름하면서 지내온 저자 다카하시 사토시 교수의 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서지학에 대한 열정이 담긴 역작을 번역한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서지학을 대상으로 한 이 책에서는 유향(劉向) 이후 면면히 이어져 내려와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정부 차원에서 부흥시키고 있는 중국 문헌학과 일본의 서지학을 융합하여 몇 개의 기둥이 되는 문헌학의 정신을 이야기 하고 하였다. 자칫하면 무미건조하다고 생각 되기 쉬운 서지학을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이 모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서술하였으며, 읽는 이에게 흥미와 함께 단순한 지식 전달 이상의 것을 느끼게 한다는 것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점을 인정받아 2011년에 제6회 게스나 상(일본에서 3년에 한 번씩 서지학 관련 저역서를 대상으로 수상) 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8, 『문자의 언어학』



본 사업단에서는 『문자의 언어학』(한국문화사)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28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문자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다룬 책이다. 문자가 언어의 단순한 표상이라는 오랜 인식에서 벗어나 문자가 언어와는 다른 자율성이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지만, 그 자율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 하지만, 이 책은 언어의 여러 단위가 문자와 맺는 관계를 검토하고, 문자가 언어에 미치는 영향을 세계 여러 문자들을 통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자가 언어와 더불어 언어학의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한글에 대해 기록한 챕터에서 이러한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한글 연구는 주로 창제자가 누구인지, 어떤 문자와 관련이 있는지와 같은 외적인 면에만 주목했지만, 이 책에서는 한글이 한국어 또는 언어의 제반 양상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 전통적인 한글 연구에도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준다.

■ 출간도서 | <문자·사회·문화> 총서 29, 『행위와 말 2: 기억과 리듬』



본 사업단에서는 『행위와 말 2: 기억과 리듬』을 <문자·사회·문화>

총서 29로 출간하였다. 앙드레 르루아-구르양(1911~1986)의 『행위와 말 Le geste et la parole』의 1권은 이미 <문자·사회·문화> 총서 19로 지난해 번역 출간한바 있으며, 이번에는 2권을 번역하여 출간한 것이다.

『행위와 말』의 1권은 1부(1~6장)로 구성되어 있고, 2권은 2부(기억과 기술, 7장~9장)와 3부(민족의 상징, 10장~15장)로 이루어져 있다. 2권에는 ‘기억과 리듬 La mémoire et les rythmes’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행위와 말』은 고고학 분야의 주요 저서이면서 동시에 현대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다. 단세포 동물에서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발전 과정을 일관된 시각으로 통찰하고 있으며, 이후 인류 사회의 변화 과정을 예견하고 있다. 이 책은 1권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2권의 2부 ‘기억과 기술’은 기억의 해방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도구, 천공카드, 전자 기억 등으로 뇌의 기능을 외부화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3부 ‘민족의 상징’에서는 가치와 리듬의 신체적 근거를 찾고, 그 기능적 미학을 분석한다. 또한 사회의 상징에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는 도시 공간을 순회하는 공간과 방사하는 공간으로 나누어 인류학적으로 분석한다. 도시화로 인해 깨져 버린 자연적 리듬을 다른 방식으로 회복 해가는 과정을 서술하고, 인류의 미래상을 내다보고 있다.